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음식점 주인, 기능성 가금류 사료 특허 취득

제주지역에서 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경영인이 복분자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가금류 사료를 개발, 특허를 취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오리 전문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용기씨는 최근 복분자 등의 성분을 일반 사료에 첨가해 오리와 닭 등의 폐사율을 줄이고 육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사료를 개발해 특허청에 '가금류 사료 조성물'에 대한 발명특허를 출원한 결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았다.

이씨가 개발한 기능성 사료는 복분자와 오미자, 백련초 등을 갈아 일반 사료에 첨가해 오리와 산란계, 육계 등에 먹일 경우 산란율이 증가하고 폐사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질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양계용 사료 70%에 복분자와 오미자, 백련초 파쇄액을 각 10%씩 모두 30%를 섞어 만든 사료를 산란계를 대상으로 6주 동안 먹인 결과, 산란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사료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폐사율 역시 일반사료는 29%에 달했지만 복분자 등의 성분을 혼합한 기능성 사료를 먹은 닭의 폐사율은 혼합 비율에 따라 최저 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능성 사료를 먹은 육계를 요리한 후 남녀 30명으로 구성된 검사요원에게 시식한 후 육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사료를 먹은 육계에 대한 육질평가(5점 만점)는 2.33점에 그쳤으나 기능성 사료를 섭취한 육계에 대한 평점은 2.87~4.48점으로 높게 나왔다.

이씨는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전북 고창과 제주지역에 기능성 사료를 공급해 가금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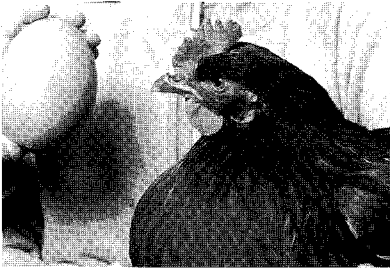
- 제주일보



## 영국

'초대형 계란' 낳는 애완용 닭 화제

일반 계란보다 훨씬 큰 대형 계란을 낳는 애완용 닭이 영국에서 보도되어 화제를 모으



고 있다.

영국 대중지 텔레 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의 한 초

등학교에서 기르던 콜롬비안 검은 꼬리 종 '리틀 릴'은 같은 종의 닭들이 낳는 알의 2배 크기의 계란을 꾸준히 낳고 있다.

이 학교의 교사인 케이트 파이미너(54)는 "학교에서 키우는 닭은 총 4마리인데 함께 키우고 있는 종이 같은 닭들의 알은 길이가 4cm~7cm에 불과하다"면서 "유독 리틀 릴만 8cm~10cm 가량의 큰 알을 낳는다"고 전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리틀 릴은 생후 약 6개월의 암탉으로 몸집도 다른 닭들에 비해 가장 작고 조용하다.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10cm의 계란이 나오는지 신기하다고 했다.

리틀 릴이 큰 계란을 낳았던 첫날 교사들과 학생들은 호기심 때문에 이 계란을 깨보았고 놀랍게도 달걀 내부의 노른자가 손상되지 않은 지극히 정상인 상태였다. 지금까지 이 닭이 낳았던 계란 중 가장 큰 것은 세웠을 때 높이로 약 10cm 무게는 220g 이상 나갔다.

한편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가장 큰 달걀은 지난 1896년 검은 미노르카 닭이 낳은 340g의 알이다.

- 서울신문

## 영국 도시 '닭 기르기' 열풍



영국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닭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불황기의 새로운 풍속

도가 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닭 사육은 신선한 계란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애완동물 구실도 해 최근 1년 사이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주로 정원이 있는 도시 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덕분에 닭장과 사료를 파는 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으며 가정에 닭을 분양하는 시민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소형 플라스틱 닭장을 판매하는 오믈렛사는 지난해 닭장 판매량이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갓 낳은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경제 불황기에 닭 기르기가 지닌 큰 매력이다. 암탉 3마리를 기르는 비키 길모어는 "계란이 탄력이 있어 껍질을 때 흰자가 퍼지지 않고 노른자는 노란 색깔이 더 진하고 맛도 좋다"고 말했다.

닭은 비교적 사교적인데다 따로 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장소를 덜 차지해 애완동물로도 인기가 있다. 닭을 기르는 대부분의 가정이 닭 하나하나에 개성에 맞는 이름을 붙인다.

현재 이처럼 영국의 도시에서 닭을 기르는 사람은 약 50만 가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들이 기르는 약 100만 마리의 닭은 공장식 축사에서 밀집 사육되는 2천만 마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축사 암탉 복지 트러스트' 등 시민단체들은 집단 사육되는 암탉을 분양받아 가정에 입양시키는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가정으로 동지를 옮긴 암탉은 올해 6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다.

'알 낳는 애완동물'을 입양한 가정은 집집마다 닭을 기르던 지난 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가 하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고 배설물을 정원비료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삶을 실현하기도 한다.

- 한계레신문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킨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 통상대표부(USTR)의 수전 슈와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물질은 미국과 EU 과학자들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들 물질로 처리된 닭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1997년 'PRT'로 불리는 미국식 닭고기 처리를 역내에서 금지 조치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이산화염소 등 PRT에 사용되는 4개 화학물질의 해금 조치를 요구했으나, EU는 지난해 12월 이를 거절했다.

미국이 해금을 요구한 물질은 모두 미국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끝난 상태로, 일부 유럽 기관들에서도 별다른 인체상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시

## 미국

### EU 닭고기 수입 기준 WTO에 제소

미국은 이산화염소 등으로 처리된 닭고기의 수입을 11년간 금지해온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운물류 전문지 저널오브커머스(JOC)가 지난 1월 16일 보도했다.

EU는 이산화염소 등의 화학물질로 처리된 닭고기에 대해 안전성을 문제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이같은 화학물질을 통용하고 있는 미국은 "실질적으로

## 독일

### 닭 한마리당 A4용지 면적 의무화

닭 한마리에 A4용지만큼의 면적을 부여해야 된다는 의무이행사항이 2009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800cm<sup>2</sup>에 높이가 60cm가 되는 닭장으로 이는 A4용지보다 약간 넓은 면적이다.

이로서 지금까지의 뻥뻥하게 찬 닭장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금지가 되며, 닭장을 넓이거나 닭 사육수를 줄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양계업계에 의하면 지정된 면적을 위해서 면적당 약 15~20유로가 개선비용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개선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들의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닭값이나 계란값이 상승한다는 결론으로 마지막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인들이 소비하는 총 계란량은 1,700만톤인데 새로운 닭장규율에 의해서 약 1,300만톤으로 감축이 된다는 분석이다.

양계장의 닭장 규정은 특히나 독일의 강력한 조치로 유럽연합 전체국가들에게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다.

- 환경일보

매일 해당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발생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별보고제는 중국 내에서 일어난 조류인플루엔자와 사스(SARS), 잠재적인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도입됐다.

위생부는 지난 1월 21일 4건의 감염 사례가 있긴 했지만 다량 감염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H5N1바이러스의 변종은 아니라고 밝혔다.

- 뉴시스

## 베이징,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 금지

베이징시는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5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월 8일 신화통신은 베이징시 당국은 질병 검사를 실시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금류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농업부는 지난 1월 7일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시내 도축장과 농장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경제

## 중국

### 조류인플루엔자 일별보고제 도입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3명이 사망하고 한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자 중국 위생부가 지난 1월 22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일별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위생부와 농업부는 각 지방 정부에게